

장애인고용 현장을 이끄는 전문인력 양성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등 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현장에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지난해에는 10개 과정을 운영해 총 2,81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는 노후화된 근로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 양성교육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여 관련 제도와 법령을 최신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보강하였다. 또한 화면 구성과 화질을 개선해 교육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현장훈련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과, 장애인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의 선임 의무 이행을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기반 학습, 의사소통 방법, 장애감수성, 안전교육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생의 집중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 교육 비중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애인고용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s://cyedu.kead.or.kr>)에서 가능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031-728-7068)로 하면 된다.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	책임자	부 장	김종미 (031-728-7111)
		담당자	주 임	이경수 (031-728-7068)

